

출장보고서

1. 출장 개요

☐ 출장명

- 한·중 FTA 대비 양국간 농산물 교역구조 변화 전망 과제 관련 해외 출장

☐ 출장목적

- 중국의 동식물검역 및 지역화 관련 전문가 조사 및 한-중 농업포럼 참석

☐ 출장자, 출장기간, 출장지

소속	출장자	직 위	출장기간	출장지
글로벌협력 연구본부	최세균	선임연구위원	2011. 12. 7. - 10.	중국 북경

☐ 주요 출장 내용

- 중국 검역 전문가 면담 및 정보 수집
- 중국사무소 주관 한·중농업포럼 참석 및 상호 협력방안 논의
- 한·중 농정 현안에 대한 논의
 - 중국 농업부 농업무역촉진중심 및 농촌경제연구중심 담당자 면담
- 2012년 FANEA 국제세미나 개최 논의
 - 중국 농업과학원 농업경제발전연구소 방문
- 대중국 농식품 수출가능성 타진 및 실태 파악 등
 - 농산물 생산기지 방문

☐ 출장 주요 일정

일시	이동 및 주요 일정	비 고
12. 7.(수)	이동(인천 - 북경) 및 전문가 면담	

일시	이동 및 주요 일정	비 고
12.8(목)	▪ 주중한국대사관 방문 및 대사 면담(14:30~) ▪ 중국사무소 주관 한·중 농업포럼 주최(16:00~) - 주제: WTO가입 이후 중국의 농업발전과 농산물무역 추세 * 포럼 후 만찬 및 상호 협력방안 논의	자하문 회의실
12.9(금)	▪ 중국농업부 농업무역촉진중심 방문(09:00) - 한중 농업부문 협력관련 논의 ▪ 중국농업부 농촌경제연구중심 방문(11:00) - 2012년 공동세미나 개최 논의 ▪ 종가집김치공장(대상) 방문(14:00) - 김치시장 및 수출입 전망 타진 ▪ 중국농업과학원 농업경제발전연구소 방문(16:00) - 2012년 FANEA 세미나 개최 논의	
12.10(토)	▪ 농산물 생산기지 방문 - 채소(과일) 생산 기지 방문 ▪ 귀국: 북경(17:30)→인천(20:25) - 아시아나항공(OZ336)	

2. 출장 내용

2.1. 중국 검역전문가 면담 내용

① 중국농산물무역의 정책환경과 무역현황?

- 중국은 현재 무역에서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 경제는 빠른 속도로 발전하였으며, 국제무역 또한 부단히 확대되었다. 1980년대에는 무역적자를 기록했지만, 90년대 이후부터 적은 폭의 무역흑자를 기록하기 시작하였으며, 97년 이후부터는 무역 흑자가 증대되어 연속적으로 신기록을 세웠다. 2010년, 중국의 대외무역이 전면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여 화물 수출입 총액이 29,727.7억 달러로, 전년 대비 24.7% 증가하였다; 이중 화물 수출은 15,779.4억 달러로 31.3% 증가했으며, 화물 수입은 13,948.3억 달러로 34.7% 증

가했다. 2010년 대외무역은 1,831.1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는데 이는 전년 대비 126억 달러 감소한 것이다.

- 국내 농산물 수급의 변화는 수입을 장려하고, 수출을 억제하는 이중 작용을 가져왔다. 2010년 세계경제의 회복은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였으며, 2011년 중국 경제는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주민소득이 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 또한 증가하였다. 이러한 요소는 국내시장의 농산물에 대한 수요를 촉진시켰으며, 수입 또한 촉진시켰다; 농산물의 장기간의 안정적 공급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는 수출을 억제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중국 농산물 수출을 위한 외부 시장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 중국의 거시적인 정책은 수출에 일정한 억제작용을 하고 있다. 국내시장의 농산물 가격 상승, 인민폐 가치 상승으로 인해 중국 정부는 국내시장을 안정화하고, 통화팽창을 억제하는 것을 중요 정책 목표로 하고 있으며, 수입을 확대하여 국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 있다. 국내 수입을 촉진하는 요소가 국내 수출을 촉진하는 요소보다 강하기 때문에 국내 정책은 수출을 억제하고 수입을 장려하는 이중 정책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0년 중국 농산물 수출입은 대폭 증가하였다; 수출액은 494.2억 달러, 수입액은 725.7억 달러로 231.5억 달러의 사상최대의 무역적자를 기록하였다.
- 시장환경 및 정책환경은 농산물 무역구조에 영향을 미쳤다. 2010년, 농산물 수출액 및 수입액은 전국 상품 수출액 및 수입액의 2.1%, 5.2%를 차지했다. 2010년, 중국은 곡물, 유량종자(Oilseeds), 면화 등 토지밀집형 상품에서 지속적인 적자를 기록하였으나, 수산물, 채소, 과일, 가공상품에서는 흑자를 기록했다. 2010년, 중국 농산물 수출액 상위 5개 품목은 수산물, 채소, 축산물, 과일, 음료이다. 수입액 상위 5개 품목은 유량종자(Oilseeds), 축산물, 식물유, 수산물, 무명실·마사이다. 과일 수출액은 43.6억 달러로 13.5% 증가했으며, 수입은 20.3억 달러로 23% 증가했다. 축산물 수출은 47.5억 달러로 21.3% 증가했으며, 수입은 96.9억 달러로 46.4% 증가했다. 이 중, 가금류 상품 수출은 30.9% 증가했으며, 수입은 1.8% 감소했다; 생돈상품 수출은 12.9% 증가했으며, 수입 또한 89.6% 증가했다; 소(牛) 상품 수출은 32.3% 증가했으며, 수입은 1.2배 증가했다; 양(羊) 상품 수입은 13.7% 증가했다.
- 최근 몇 년 간 중국 농산물의 무역은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 농산물의 무역적자 규모가 갈수록 확대되고 있으며, 국내 농산물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

여 국내 농산물 가격과 국제 가격 간의 격차가 좁혀지고 있으며, 일부 상품은 오히려 국제가격보다 높은 수준에 있어 중국의 대규모 수출 가능성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따라서 중국 및 관련 국가 간의 동식물 협상 동력이 약화되고 있다.

② 2009년, 2010년 발생한 구제역질병 및 도축 현황은? 한국으로의 가축 수출이 가능한 시기?

- 중화인민공화국에서 발표한 《수의공보(獸醫公報)》(2009년, 2010년)에 따르면, 2009년, 2010년 국내 구제역 및 조류독감 발생 현황은 다음과 같다. 2009년 발생한 구제역은 총 16건으로 대부분 Asia-1이며, 4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하였다. 4월에 발생한 구제역이 7건으로 주로 신강(新疆), 산둥(山東), 귀주(貴州), 청해(青海), 내몽고(內蒙古), 호남(湖南), 강소(江蘇) 등 13개 성에서 발생하였다. 발병한 가축 및 가금은 총 1,504마리로, 16마리가 죽고, 5,644마리를 도축했다; 2009년 발생한 조류독감은 2건으로, 서장, 신강에서 발생했으며, 모두 H5N1형이었다. 서장 지역에서 조류독감에 걸린 닭은 총 1,330마리로 519마리가 죽었으며, 13,218마리를 도축했다.
- 2010년 발생한 구제역은 총 15건으로 모두 O형이었다. 3-7월에 집중 발생했으며, 이중에서도 특히 4월에 집중 발생하였다; 주요 발생 지역은 청해(青海), 감숙(甘肅), 신강(新疆), 서장(西藏), 귀주(貴州), Ningxia(寧夏), 산둥(山西), 강서(江西) 및 광둥(廣東)의 9개 성으로, 발병한 가축 및 가금이 3,920마리로 25마리가 죽고, 11,541마리를 도축했다. 2010년에는 전국적으로 조류독감이 발생하지 않았다.

<도축 현황>

표 1. 2009, 2010년 중국 축산물 생산량

단위: 만 톤

년도	육류	돼지고기	소고기	양고기	가금육
2009	7649.7	4890.8	635.5	389.4	1734.0
2010	7925.8	5071.2	653.1	398.9	1802.5

자료: 《2010년 중국통계연감》, 《2011년 중국통계연감》

- 도축량에 대하여 중국상무부는 전국 일정규모이상 생돈도축기업의 월별 도축량을 발표했으며, 기타 축산품종에 대한 데이터는 없다.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2010년 전국의 일정규모 이상 도축기업의 생돈 도축량은 총 22,749.3만 마리로, 2009년 대비 9.24% 증가했다.

표 2. 2010년 전국의 일정규모 이상 생돈도축기업의 월별 도축량

단위: 만 마리

시 기	월 도축량	시 기	월 도축량
2010年1月	2128.2	2009年1月	1770.4
2010年2月	1595.5	2009年2月	1259.3
2010年3月	1774.4	2009年3月	1562.8
2010年4月	1933.1	2009年4月	1672.5
2010年5月	1935.1	2009年5月	1717.5
2010年6月	1882.5	2009年6月	1741.5
2010年7月	1775.2	2009年7月	1716.9
2010年8月	1779.2	2009年8月	1739.2
2010年9月	1897.4	2009年9月	1816.1
2010年10月	1891.9	2009年10月	1832.3
2010年11月	1944.5	2009年11月	1886.9
2010年12月	2212.3	2009年12月	2109.6
2010年 1~12월 합계	22749.3	2009年 1~12월 합계	20825

자료: 중국상무부

- ③ 식물병해충이 발생하지 않은 100만 ha의 사과지대가 제1차 계획건설구역(第一次规划建设区)이 되었는데, 그 성과가 무엇인가? 그리고 제2차 계획건설구역(第二次规划建设区)인 50만 ha의 감귤지대에서 식물병해충 미발생의 성과가 무엇인가?

<사과병해충미발생지역 건설>

- 2004년 농업부는 서북황토고원과 환발해만 사과우수생산지역에 133.3만 hm^2 의

사과병해충비발생지역을 건설하기 시작하였다. 이 사과병해충 비발생지역 내에서는 기본적으로 식물병해충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수입국의 검역요건에 부합하는 사과만을 생산함으로써 사과의 국제경쟁력을 향상시켰다. 섬서성 사과병해충비발생지역을 예로 들어 설명하면 첫째, 코드링나방(Codling Moth) 등 검역성 유해생물의 모니터링통제체계를 구축하였다. 둘째, 검역성 유해생물에 대한 관리감독체계를 구축하였다. 셋째, 식물검역과 사과병해충비발생산지보호체계를 구축하였다.

<감귤병해충비발생지역 건설>

- 2007년 농업부는 충경시에서 전국 최초의 감귤병해충비발생지역 건설사업에 착수하였다. 병해충비발생지역 건설을 통하여 감귤궤양병(citrus canker), 감귤그린병(Citrus huanglongbing), 감귤과실파리 등 병해충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었다. 현재 중경시 감귤재배면적은 16.75만 ha에 달하며 감귤은 농민의 최대 수익창출원이 되었다. 이러한 성과를 통하여 다음의 몇 가지 경험을 축적할 수 있었다. 첫째, 홍보를 통하여 식물검역과 감귤병해충비발생지역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이끌어냈다. 둘째, 성(省) 간 협력을 강화하고 시(市)-현(縣)-향(鄉) 3급 연동검역을 시작하였으며, 외부에서 유입된 병해충에 대한 방어체계를 구축하고 감귤종묘에 대한 산지검역을 강화하였다. 셋째, 농업식물검역의 정보화를 발전시켰다.

- ④ 2007년 중국에서는 여지 수출 금지를 우선적으로 철회하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협의를 거쳐 양국은 먼저 여지와 용안의 수입위험성평가를 진행한 후 호박의 수출금지방안을 재연구하기로 결정했었다. 하지만 2009년부터 중국 정부는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였고 최근 몇 가지 품종의 수출위험성 평가에는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중국은 왜 수출금지 철회에 대하여 소극적인 태도를 취한 것인가?

- 이는 현재 중국이 처한 무역단계, 국내 거시정책의 방향, 농산물 공급 상황의 변화와 관계가 있다. 또한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와 같은 한국의 엄격한 무역정책과도 관련이 있다. 중국의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식품 및 식품첨가제, 의약품 및 약품원료 등이 한국의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의 영향을 비교적 크게 받는다. 중국수출기업에 따르면, 한국의 중국수출농산물 검사항목은 100여 가지에 달하고 검역기준이 매우 까다로우며 화물이 항구에 도착하면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였다. 한국의 강제성 검역과 계약검역이 외의 검역항목이 일시적으로 늘어났었으며,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관세를 부가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중국이 수출하는 냉동홍고추는 한국이 갑자기 80%의 수분함량 요구를 제기하여, 수분함량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고추에 대해서는 수입관세를 더 부과하기도 하여 수출입상에게 큰 손해를 안겨주었다. 전염병 지역화문제에서 보면, 한국은 중국의 모지역에 한국에서 금지하는 동식물 전염병 혹은 병해충이 존재할 경우, 전염병비발생지역에서 생산되었더라도 같은 품목이면 무조건 수입을 금지하였다. 또한 한국에서 유지하고 있는 관세가 너무 높은 문제가 있다. 채소, 과일, 식물제품의 최혜국 평균 적용세율은 57.7%인데 반해 최고관세는 887%에 달한다.

- ⑤ 중국사과를 호주에 수출하고 있는 것은 중국사과에 병해충이 전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렇다면 한국에는 언제쯤 중국사과를 수출할 수 있을 것 같은가?
- 중국사과는 이미 전세계 5대주 80여개 국가와 지역에 수출되고 있지만 미국, 일본, 한국 등 국가에는 여전히 중국사과 수출의 기회가 굳게 닫혀있다. 섬서성 등 4개 성(省)의 사과는 기술장벽을 극복하고 검역요건이 가장 엄격한 국가 중 하나인 호주에 수출을 하고 있다. 이는 중국사과의 품질안전이 선진국의 기준에 완전히 부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중국은 중국사과 수출을 확대하기 위하여 국내식물전염병관리감독체제 정비, 사과 전염병비발생지역의 건설, 국제협력 강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언제쯤 한국에 수출할 수 있을 지는 중국 정부가 아직 시기를 확정하지 않은 상태이나, 한·중 양국의 공동 노력에 전적으로 달려있다고 본다.
- ⑥ 언제쯤 사과 이외에 배, 감귤, 복숭아, 감, 단감 등을 한국에 수출할 수 있을 것 같은가?
- 한국에 언제쯤 수출이 가능할지는 중국 정부가 아직 시기를 확정하지 않은 상태이나, 이는 한·중 양국의 공동노력에 전적으로 달려있다.
- ⑦ 가금질병 및 식물병해충 미발생지역의 건설과 관련한 최신 자료의 수집여부?
- 해남성의 동물전염병 무발생지역은 1999년 처음 건설되었다. 10년 후인 2009년 해남성 동물전염병 무발생지역은 국가검수를 통과하여 전국 제1의 동물전염병 무발생지역이 되었다. 2011년 8월 해남성(海南省)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해남

성 농업청(農業廳)이 해남동물방역물자비축·긴급대응센터(動物防疫物資儲備應急中心)를 건립하는 것에 동의하였고, 이 사업에 총 3,000만 위안을 투입하였다. 건축면적은 5,000㎡로 방역물자저장구역, 긴급모니터링구역 등이 포함되었다. 방역물자비축·긴급대응센터가 완공되면, 해남성의 중대한 동물전염병에 대한 방역수준과 전염병 발생시 긴급대응능력이 전면 제고될 것이다. 중경시(重慶市) 감귤병해충비발생지역을 예로 들면, 과실파리(fruit fly) 모니터링은 중경시 감귤병해충비발생지역의 중요한 구성부분으로서 일정한 성과를 거두어왔다. 2010년 중경시 39개 현(자치현)은 2,378개의 과실파리 모니터링상황실을 분산 설치하였다. 그 중, 감귤병해충비발생지역의 과실파리모니터링상황실은 2,000곳, 일반 과실파리모니터링상황실은 300곳이다. 현재까지 중경시의 818곳 모니터링상황실에서 과실파리를 4,957회 유인하여 총 41,659마리를 포획하였다.

2.2. 중국사무소 주관 한·중농업포럼 참석 및 상호 협력방안 논의

□ 포럼 개요

- 일시 : 2011년 12월 8일(목) 16:00~18:00
- 장소 : 북경 자하문 회의실
- 주제 : WTO 가입이후 중국의 농업 발전과 농산물 무역 동향
- 발표자 : 중국농업부 농업무역촉진중심 쉬홍위안(徐宏源) 부주임
- 참석자 : 이동필 원장, 정정길 북경사무소장, 조일호 북경주재한국대사관 농무관, 조신희 북경주재한국대사관 수산관, 농협, 유통공사 등 유관기관 관계자, MBC 머니투데이 등 언론인 포함 40여명

2.3. 중국농업부 농산물무역촉진중심 및 농촌경제연구중심 방문

□ 중국 농업부 농산물무역촉진중심(中國農業部農產品貿易促進中心)

- 장소 : 중국 농업부 농산물무역촉진중심 회의실
- 일자 : 2011. 12. 9(금) 09:00~10:30
- 참석 : 이동필 원장 외 4명(한국측),倪洪興주임외 4명(중국측)

□ 중국 농업부 농촌경제연구중심(中國農業部農村經濟研究中心)

- 장소 : 중국 농업부 농촌경제연구중심 회의실
- 일자 : 2011. 12. 9(금) 11:00~12:00
- 참석 : 이동필 원장 외 4명(한국측),倪洪興주임외 4명(중국측)

□ 주요 논의 내용

- 이동필 원장은 신임 원장으로서 2011년 12월 8일 본 연구원 중국사무소가 개최하는 제7차 한·중 농업포럼에 참석하고 본 연구원과 연구협력 MOU를 체결한 중국 농정연구기관을 방문하여 상호 관심사를 논의하기 위해 방문하게 되었다는 방문 취지를 설명하고 양국 농업의 상호관심사에 대해서 심도있는 의견을 나누었음.
- 본원과 중국 농업부의 두 연구기관 모두 그동안 다져진 연구협력관계를 토대로 앞으로도 좀 더 많은 연구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추진할 것을 합의하였음.
- 중국 농업부 농산물무역촉진중심 방문시에는 한·중 FTA와 관련한 상호 관심사를 심도있게 논의하였음.
- 중국은 한국 농업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으며 한·중 FTA 협상에서 한국 농업의 민감성을 충분히 고려할 준비가 되어있으므로 한국이 빠른 시일안에 본 협상에 임하기를 바라고 있다는 입장을 피력하였음.
- 중국은 한·미 FTA 비준을 계기로 한·중 FTA의 추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한·중간 무역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빠른 시일내에 한·중 FTA 협상이 개시되기를 희망하고 있다는 입장을 피력하였음.

2.4. (주)대상 중국사업본부 종가집 김치공장 방문

□ 방문 개요

- 장소 : 종가집 김치공장 회의실
- 일자 : 2011. 12. 9(금) 14:00~15:00
- 참석 : 이정석 공장장, 이동필 원장 외 4명

□ 주요 논의 내용

- 이정석 공장장과 면담을 통해 중국에 진출한 종가집 김치공장의 사업 현황을 청취하고 중국 소비자의 김치 소비 추세 및 대 중국 김치 수출과 관련한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나눔.

- 종가집 김치는 2004년 5월 중국에 진출하였으며 당초 중국 내수보다는 미국, 일본 등으로 수출하기 위한 수출기지로 육성한다는 전략을 수립하였음. 따라서 전체 매출액의 90%는 수출, 10%는 내수였음.
- 2008년 중국 북경에서 개최된 베이징올림픽의 공식납품업체로 지정되고, 사업 진출 이후 중국 소비자에게 '종가집 김치' 브랜드의 지명도가 점차 제고되었을뿐만 아니라 한류가 확산된 것을 계기로 삼아 과거 수출위주의 성장전략에서 중국 내수위주의 성장 전략으로 전환하였음. 현재는 전체 매출액의 90%가 중국 내수이며, 수출이 10%를 차지하고 있음. 수출은 육로 수송이 가능한 국가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몽고가 대표적인 수출대상국임. 한국의 김치 수출은 해운 수송이 가능한 국가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2.5. 중국 농업과학원 농업경제발전연구소 방문

□ 방문 개요

- 장소 : 농업과학원 농업경제발전연구소 회의실
- 일자 : 2011. 12. 9(금) 17:00~18:00
- 참석 : 이동필 원장 외 4명(한국측), 秦富소장 외

□ 주요 논의 내용

- 이동필 원장은 신임 원장으로서 2011년 12월 8일 본 연구원 중국사무소가 개최하는 제7차 한·중 농업포럼에 참석하고 본 연구원과 연구협력 MOU를 체결한 중국 농정연구기관을 방문하여 상호 관심사를 논의하기 위해 방문하게 되었다는 방문 취지를 설명하고 양국 농업의 상호관심사에 대해서 심도있는 의견을 나누었음.
- 2012년은 본원과 농업경제발전연구소가 연구협력 MOU를 체결한지 10년이 되는 뜻깊은 해임.
- 본원과 중국 농업부의 두 연구기관 모두 그동안 다져진 연구협력관계를 토대로 앞으로도 좀 더 많은 연구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추진할 것을 합의하였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중국농업과학원 농업경제발전연구소(IAED/CAAS), 일본

농림수산성 농림수산정책연구소(PRIMAFF)가 참여하는 제8차 동북아농정연구 포럼(FANEA)이 2011년 중국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일본의 지진 발생으로 연기된바 있음.

- 2012년에 중국에서 개최될 제8차 FANEA와 관련하여 장소, 시기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음. 이동필 원장은 당초 백두산 인근에서 개최하기로 하였으나 2012년에 한·중 FTA가 이슈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북경에서 개최하는 것도 고려해주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피력하였음.
- 제8차 FANEA의 주제는 이미 확정된 바 있으므로 그대로 유지하되 시기와 장소 등 구체적인 일정은 3국의 실무자들이 논의하여 최종 확정하기로 합의함.